

◇ The Year of Advance and Development Assured by Self-Consciousness

1969年度의 公共圖書館界

—前進과 발전을 다짐하는 自我發見의 해—

申 學 均

(國立中央圖書館 指導協力課長)

1. 序 言

1960年代를 보내고 이제 1970年代의 문턱에 들어서
려 하고 있다. 이 지나온 10년동안 경제적으로 社會的

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文化의 一翼을 담당하는 도서관
계 특히 公共圖書館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걸진적
이나마 그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연도별 대비표

연 도 별	관 수	직 원 수	열람석수	장 서 수	연간이용 책 수	연간 이용자수	예 산
1 9 6 0	18	143	3,422	576,260	472,766	894,957	
1 9 6 1	—	—	—	—	—	—	—
1 9 6 2	21	211	3,908	604,231	524,618	914,320	
1 9 6 3	27	237	5,469	643,268	703,491	1,373,938	
1 9 6 4	48	341	6,712	691,898	895,594	1,846,156	7,166,714
1 9 6 5	49	412	8,909	694,515	897,596	1,668,142	9,106,936
1 9 6 6	53	455	10,259	772,619	1,317,752	2,460,507	77,967,314
1 9 6 7	57	456	10,161	820,954	1,020,654	2,267,385	132,335,700
1 9 6 8	59	463	12,443	864,402	977,493	2,457,200	124,434,572
1 9 6 9	61	556	13,682	927,684	976,801	2,861,821	183,125,555

우선 도서관 수에 있어서나 직원 수, 장서 수, 예산
등에 있어서 10년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進展한 것은
사실이다. 이 10년 동안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해는 圖書館法이 制定 公布된 1963년이요, 이에 근거
하여 京畿道內에 20여개의 郡立圖書館이 세워진 1964
年이다. 質에 대해서는 論外로 하고 우선 量的인 面으
로 볼 때 前年度(1963年度)의 약 4배에 가까운 公共圖
書館이 늘어났으니 이는 그의 발전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一面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公共圖書館 발전에 대한 긍지로
자부심을 갖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앞으로 全國의 市
郡은 勿論이요, 마을마다 도서관 내지는 마을文庫가 設
置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1965年 이후 圖
協이나 全國 公共圖書館長 會議 등 機會가 있을 때 마다
公共圖書館 발전을 위한 全國 市·區·郡 單位 公共圖
書館 設置 計劃案을 作成하여 關係當局에 數次 건의하
여 1967年에 文教部에서는 公共圖書館設置 5個年計劃
을 수립하여 每年 10개관씩 未設置 市·道에 공공 도서
관을 설치하는 계획을 推進하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全國의 市·도에는 도서관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욕심으로는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

圖書館이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 간절할 뿐이다.

도서관이 그 나라의 文化를 자질하는 尺度이기에 우
리도 文化民族으로서의 명예와 자랑을 가져보고 싶은
아니 國家의 번영을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에서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1960年代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1969년에 있어
서의 공공도서관계는 自我의 發見과 評價 그리고 前進
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인 해 이기도 했다.

勿論 도서관계 전체의 일하기는 했지만 圖協이 주최
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도서관 국제회의의 개최, 도서
관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의 실시, 봉사 개선을 위한 노
력, 공공도서관대회 개최, 사서교육의 실시, 군립의에
진주 강릉 兩 市立圖書館의 신축 개관, 讀書週間 행사
의 개최 등등 어려운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

2. 國際會議의 開催

1969年 5月 28일부터 30일 까지 3일간 아카데미 하
우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의 10개국 代表가 參席
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 되었다.

“국가의 近代化 과정에서 있어서의 도서관의 역할”에
관계되는 諸問題를 검토함으로써 國內政策 樹立에 기

여하고 地域社會 開發을 촉진하며, 아울러 도서관 개발을 통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 이 회의에서 國內外 도서관계 人士들이 모여 의제 發表와 진지한 討論으로 도서관의 重要性을 再確認하는 同時에 국제간의 協力을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회의에서 特히 文教當局은 前記한 公共圖書館 發展을 위한 國家計劃을 적극 추진하여 1972년까지는 全國의 市·區·郡마다 공공 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정부方針을 천명한 바 있다. 국가발전의 先行條件으로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先進 諸國의 발전 과정에서 이미 찾아 볼 수 있는 사실이다.

비록 뒤늦기는 하였으나 도서관의 重要성과 必要性이 國家 社會的으로 再認識되고 再強調 되었다는 것은 確實히 번영과 진진을 다짐하는 1970年代로 뻗어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3. 圖書館의 經營管理와 奉仕改善을 위한 活動

全國의 公共圖書館들은 그들 나름대로 봉사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종로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독서실을 확장 이전함과 동시에 참고업무를 강화하였다. 남산도서관에서는 가정주부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主婦·열람실을 마련하였다. 부산시립도서관의 경우 동래분관의 내부를 수리하여 이용자에 대한 명랑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고, 청주시립도서관의 경우 독서 시설로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의 환경정리와 독서회의 육성 강화에 노력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도서관들이 보다 훌륭한 봉사를 위하여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國立中央圖書館의 경우 基本運營方針 세가지를 設定하여 모든 업무의 정비와 혁신을 통하여 기능적인 운영을 기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신축을 위한 제반 준비를 갖추어 70年代의 跳躍을 위한 대비태세에 萬全을 기하였다.

첫째로는 새로운 도서관 制度의 方向設定과 制度化를 위하여 장기적인 主要事業計劃을 수립하였고,

둘째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地位 確立과 직제의 합리적인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셋째로 표준행정의 실시를 위하여 各種 規程을 補完 또는 新규로 制定하고 통계와 서식을 만들어 單行本의 규정집을 發刊하였다.

4. 公共圖書館部會 活動

공공도서관부회가 조직된 이래 최초로 개최된 금년도 공공도서관대회는 충북 청주에 있는 淸州市立圖書館에서 개최되었다.

9月18日과 19日 兩日間に 걸쳐 개최된 이 會議에서

는 異例的으로 많은 會員들이 참석한 가운데 開會式에 이어 두사람의 議題發表가 있었다. (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의 대중화 방안<종로도서관 金榮朝> ② 공공도서관에 있어서의 讀書指導 <국립중앙도서관 申學均>)

이어서 공공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協議를 하였다. 문제점으로는 例年과 다름 없이 ①소속청의 一元化 問題 ②사서직 수당 지급 문제 ③地方 公務員 任用令 改正問題 ④도서관 건립에 대한 국가 보조 문제 ⑤사서직의 직급 인상문제 등이 論議의 초점이 되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일조인식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圖協에 一任하기로 하고, 마지막 決議事項으로는 「독서 운동의 展開」에 대한 결의문을 作成 발표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마치었다.

이밖에 今年度 部會 사업으로 지역사회 실태와 공공도서관 실태조사 및 私設讀書室 실태조사를 하였다.

1) 地域社會와 公共圖書館의 實態 調査

이 調査는 全國의 市·區·郡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內容은 ①지역 사회 실태 ②도서관 실태 ③운영 실태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67個의 小項目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의 조사는 각 市道의 常任研究委員 도서관이 담당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分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것이 完了되면 冊子로 나올 것이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현황분석과 장래의 계획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믿는다.

2) 私設讀書室 實態 調査

大都市에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설독서실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①입관료 문제 ②全日 개관으로 인한 풍기문제 ③시설 불비에서 오는 위생문제 ④老朽 건물외의 경우 수반되는 위험문제 ⑤도서관 자료의 全無 등이 그것이다.

비록 도서관법 제24조에 “누구든지 도서관과 동종의 施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社會的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어 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또한 현황 판단에 좋은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5. 公共圖書館의 新築

國家補助에 의하여 세워지는 郡立圖書館 外에 私財와 地方自治團體가 財政을 전담하여 세워진 두개의 市立圖書館이 있다.

하나는 晉州市立圖書館이다. 이 圖書館은 晉州出身 篤志家 具仁會 氏의 回甲記念으로 私財 1,300만원을 들

(11面に 繼續)

혹은 강습회 정도를 수업한 분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실무에서 資料 整理 및 기타 사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나 參考 업무에서는 크게 공헌을 기대할 수가 없다. 大學 社會에서는 司書들의 主題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參考室에는 碩士學位를 받은 司書가 필요하게 되었고 雜誌室도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 문제는 아직 전도 요원한 이야기이다. 또한 가지 고민은 大學의 圖書館 책임을 맡은 분들이 圖書館學을 전공한 분이 많지 못한 점이다. 전공이나 研究分野가 전연 다른 분들은 도서관 행정 보다는 研究에 몰두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圖書館의 發展에 큰 기대를 걸 수가 없을 것 같다. 물론 유능한 사서장들이 있어 보좌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는 大學 圖書館 司書들에게 教授들과 같은 자격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大學의 教育은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圖書館에서도 이루어 진다고 보고 司書들의 教育的인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실정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그 이유는 大學의 教授 자격을 받을 만한 司書들의 數도 많지 못하지만 우리 나라 大學의 制度上 모순이 있다고 본다. 外國에서는 圖書館이 大學의 一部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이를 부속 기관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부속 기관은 절대적인 것이 못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점이 대학도서관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大學 社會에서 圖書館은 學問의 中心街인데 부설 기관으로 뒤에 미루어 놓고 있으면 그 社會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

長은 조용히 들어 앉아 研究만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우리나라 大學 圖書館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런 요소 혹은 가능성이 있으면 大學의 圖書館이 빛을 보기 힘들 것 같은 노파심에서 염려하는 것 뿐이다.

앞으로 大學 社會에서는 모든 司書들의 자질 향상을 피해야 할 것 같다. 圖書館學 분야의 大學院 과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大學 圖書館 司書 매우 문제도 고려 되어야 할 것 같다. 大學院을 졸업하고 와서 4년제 학부 졸업생과 동등의 대우를 받으면 구태여 학위를 받을 의욕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大學 行政 당국과 잘 절충하여 재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본다.

大學 圖書館 大會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문제이지만 앞으로 대학 도서관의 機械化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복사기를 구입한다거나 콘베이어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일이 곧 機械化라고 생각 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먼저 大學 圖書館 機能이 기술이나 봉사면에서 올바른 궤도에 오르기 전에 機械부터 구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다. 미국서도 전자 계산기를 들여 놓고 오히려 고민하는 도서관도 보았다. 機械는 빠르고 多量을 취급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아까운 예산을 듬뿍 잡겨 놓고 機械에 먼지가 앉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서 機械化를 고려해야 될 것 같다. 모든 도서관의 機械化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단지 문제는 그 時期에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8面에서 繼續)

여 新築해 가지고 晉州市에 기증한 現代式 2層 콘크리트 건물(178坪)로 今年 1月 9日에 開館하였다. 이 도서관은 330席의 열람석과 約 5,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出發하였으며 晉州市의 發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江陵市立圖書館으로서 市財政 900만 원을 들여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200坪)을 짓고 금년 9月 17日에 開館하였다. 이 도서관은 260席의 열람석과 약 3,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出發하였으며 江陵市의 發展에 크나큰 寄與를 할 것이다.

이는 모두가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의 所産으로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淸涼劑요. 보람찬 앞길을 비쳐주는 光明이 아닐 수 없다.

6. 結 語

이상으로 今年度에 있어서의 公共圖書界 活動을 대

강 훑어 보았다. 비록 그 數가 적고 자료나 예산이 빈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런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後退가 아닌 前進이요, 무엇인가 해보자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다. 量的인 增加와 質的인 向上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70年代의 번영을 위한 노력의 일단이다.

이 해를 넘기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공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 소속청의 일원화 문제, 사서수당 지급 문제,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 문제를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우리가 약하다고는 하지만 힘과 마음을 합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 하나 해결 될 것이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굳은 信念을 가지고 일할 때 보람찬 來日은 우리를 저바리지 않을 것이다.